

成人社會와 青年期の 問題性

李 相 魯

慶北大學校 教育學科

I

우리는 青年期를 흔히 “第二의 誕生期”라 부른다. Rousseau 는 “우리는 말하자면 두번 태어나게 된다. 한번은 存在를 위하여 태어나고 또 한번은 生活하기 위하여 태어난다. 한번은 人間으로서 태어나고 또 한번은 男性으로서 女性으로서 태어난다”고 함으로써 青年期の 意義와 重要性을 잘 要約해서 說明하고 있다.

이렇듯 青年期는 發達上으로 보아 그 自體 問題性을 隨伴한 過渡期일 뿐만 아니라 現代社會가 處하고 있는 文化의 複雜性과 物質文明과 精神文化의 不均衡은 오늘날 젊은 이들의 問題와 그 樣相을 過去와는 다르게 크게 變貌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이의 解決을 위한 努力이 非專門人의 常識의이고, 微視的의이고, 臨時 彌縫的인 對策에 不過하며 따라서 治療와 是定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激變하는 現代社會의 여러가지 變化에 敏感한 젊은이들의 性向으로 보아 새로운 原理가 이니고서는 도저히 解決될 수 있는 問題性들이 續出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專門的인 知識과 對策의 必要性, 특히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心理學者들의 積極的인 關與와 問題解決을 위한 集中的인 努力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우선 青年期の 性質과 그 問題性을 心理・社會的인 側面에서 分析, 檢討하고, 그 可能한 解決의 方向을 摸索함으로써 心理學徒들의 積極的인 關與와 關心을 촉구해 보고자 한다.

II

그럼 青年期の 問題性을 新明하기에 앞서 우선 青年期の 性質을 밝혀 보기로 하자. 青年期(adolescent)란 心理學에서 대체로 男子 13 歲로부터 23歲, 女子 12 歲부터 22 歲까지의 약 10年間을 말한다. 그래서 그 10年の 大部分이 10代에 該當되기 때문에 이 時期의 問題性을 가리켜 俗稱 teen-ager problem 이라고도 부른다.

이 青年期란 全 人間發達過程을 通하여 볼때 어떤 意味로서는 가장 어려운 時期이며 混亂을 隨伴하는 轉換 乃至 過度期(transition period)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兒童이 家族이나 家庭에 隸屬되어 있는 依存的인 家庭的 存在라면, 青年은 이 家庭에서 벗어나 社會에로 떨어져가는 獨立에로 指向하는 社會的 存在로서의 轉換期에 접어드는 것으로 이 時期를 우리는 그러한 意味에서 心理的 離乳(psychological weaning)期라고도 부른다.

또 社會的으로도 政治나 經濟 그리고 文化에 있어서의 過度期란 다분히 어떤 混亂이 隨伴되기 마련인 것과 같이 個體發達の 過程上에 있어서의 青年期 역시 아이(兒童)도 아닌 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올라가는 過度期이다. 그러기에 發達過程上에 나타나는 現象面에 있어서도 必然的으로 어떤 問題性에 대한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青年들을 指導하고 그 問題性을 解決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青年을 理解해야 한다는 事實은 學子나가 잘 알고 있는 自明한 일이기도 하나 青

年期 特有的 閉鎖의 態度로 인해서 青年期 같이 外部에서의 理解가 어려운 存在로 드물다. 더우기 人生의 再出發이 始作되고 精神과 生活樣式의 再體制化가 이루어지는 過度期의 青年을 다루어야 할 指導者의 教育的 조치의 紛雜과 矛盾은 問題를 더욱 複雜微妙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青年들을 指導하는 父母나 教師 그리고 또한 青年들에 대한 指導任務를 가진 社會人들은 既成의 立場에서가 아닌 보다 青年들의 性質이나 그 立場에 대한 깊은 理解를 바탕으로 그의 指導에 臨해야 할 것이다.

III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青年期란, 社會라든 그들의 環境을 떠나서도 有機體로서 成長發達해 가는 過程上의 特徵으로 여러가지 問題性을 나타낼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時期에 있어서의 問題可能性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간단히 考察해 보기로 하자.

1. 身體의 急速한 成長과 筋肉 骨格等 身體 및 體力의 發達은 最高의 水準에 이르러 充溢된 energy는 過激, 亂暴한 行動으로 表出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2. 青年期의 心理的 離乳期 現象은 家庭이나 學校가 지니는 引力을 微減시키고 未知와 好奇의 世界인 社會에로 그 生活舞臺가 옮겨져감으로써, 道德的 批判力이 弱하고 感受性 많은 그들에게는 특히 諸社會病理現象의 感染可能性이 높다.

3. 知的 經驗의 成熟과 擴大 및 價値觀의 形成期에 該當되는 그들은 知的 欲求에의 追求와 더불어 價値觀間의 葛藤이 personality의 統合(integration)을 阻害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一方의인 理想에의 追求는 現實的 經驗이 不足한 그들에게 尙상 理想과 現實間의 葛藤과 現實에 대한 懷疑와 否定的 姿勢가 形成되기 쉽고, Erikson의 用語를 빌린다면 所謂 "identity crisis"에 처하기 마련이다.

4. 自我의 急激한 發達期에 該當되는 青年期는 自己主張과 自己實現의 欲求(need of self-realization)가 強하고 따라서 그들의 環境에 대해서 攻撃的이면서도 自我防禦(ego-defense)的 機制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5. 家庭과 妻子를 갖지 않은 그들에게는 社會的 連帶 및 扶養의 義務感이 薄弱하고 그로 말미암은 自己統制力은 不足은 다른 青年期의 特徵과 複合되어 青年期 行動의 特徵을 더욱 強化시키고 있다.

6. 情緒的 可變性과 兩極性은 社會에 대한 지나친 情緒的 安定感이 缺如되기 쉽다. 이는 知的 側面에 있어서의 personality의 不統合性(3項 參照)과 더불어 青年期 personality의 特性을 形成하여 恒常 不安과 焦燥의 不安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7. 性的 成熟과 異狀行動의 發達

이상과 같은 發達上에 나타나는 青年期의 特徵은 그들의 社會 即 既成秩序와 慣習 그리고 成人들의 既成觀念과 作用할 때 여기에 보다 더 많은 問題를 派生시켜 所謂 teen-age problem 이니 靑少年들이 지니는 社會病理니 하여 國內뿐만 아니라 國際的인 社會問題로 까지 擡頭되고 있음도 昨今の 일은 아닌 것 같다.

IV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成人 對 靑年 즉 두 世代間의 關係에서 오는 問題性을 살펴 보기로 하자. 한단계로 要約하면 이는 既成들의 靑年에 대한 沒理解와 既成들의 觀念을 그 靑年들에게 一方의이고 獨善的으로 強要하는 데서 모든 問題들이 派生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世代間에 派生되는 問題들은 좀 더 具體的으로 略述해 보기로 하자. 그에 앞서 한 마디 強調해 두고 싶은 것은 問題란 어떠한 것도 반드시 關係에서 發生하기 마련이란 점이다. 따라서 靑年期의 問題性과 靑年과 成人, 社會間에서 派生되기 마련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靑年의 性質과 成人 및 社會의 性質間의 力動的 交互作用의 結果로서 決定된다. 그러기에 반드시 靑年期의 問題는 靑年期 特性에 비추어 그 「關係」 위에서 理解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對話의 斷切과 不信感

靑年들은 既成社會나 成人들에 대한 不信感이 높다. 그것은 前述한 3項의 現實에 대한 懷疑와 否定的 姿勢, 5項의 成人社會 乃至 成人으로

부더의 自我의 不容納等이 複合되어 現實否定的인 不信感이 高潮된다. 뿐만 아니라 現實感覺에 둔한 青年, 그리고 社會的 連帶意識이나 扶養의 責任感이 없는 그들의 눈에는 成人들의 正義나 改革 그리고 進取에 대한 가장 無氣力한 存在로 비쳐지게 되어 그 不信感을 高潮시킨다. 이와같은 不信感은 兩代間의 對話의 단절을 促進시키고, 對話의 斷切은 또한 相互理解를 위한 社會를 박탈함으로써 不信感을 漸高시키 주는 것이다.

2. 反抗의 姿勢와 行動

이와 같은 不信感은 反抗心으로 發展되어 積極的으로는 既成社會나 그 秩序에 대한 攻擊의 破壞的인 反社會的 行動(anti-social behavior)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消極的으로는 既成社會를 外面하는 非社會的 行動(disocial behavior)으로 나타난다.

或者는 青年期의 反抗性을 理由없는 反抗이라고 하여 青年의 性質에 그 責任을 轉嫁시키는 傾向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診斷이다. 青年들 앞에 나타나는 既成의 代表者는 곧 家庭의 아버지요 學校의 教師나 教授이다. 그들은 항상 青年들의 自我를 受容하거나 容納시키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스스로의 既成觀念과 價値觀에 따라 또 自身들의 편이에 따라 青年들의 存在를 無視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指示와 強要로 一貫한다. 이렇게 될 때 青年들의 自我에 대한 欲求不滿(frustration)이나 自己實現의 欲求에 대한 欲求不滿이 反抗의 行動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必然的 歸結이라고 보겠다.

3. 價値觀의 葛藤과 指標의 喪失

이미 前記 3項에서 말한바와 같은 價値觀 形成期에 있어서의 青年들의 價値觀의 葛藤은 獲得되고 擴大되어 가는 知的 經驗의 無體係에서 오는 混亂과 그와 現實間의 問題 그리고 成人들로부터 指示되고 強要되는 傳統的인 價値觀과의 關係에서 오는 葛藤은 青年들의 知的 世界를 보다 混亂케 하고 青年들의 눈에 비쳐진 成人世代의 不信感은 그들의 價値觀設定을 위한 指標獲得을 阻害하는 큰 要因으로서 作用하게 된다.

이와같은 現象은 成人이 가져야 할 青年에 대한 指導力을 喪失케 하는 중요한 要因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때로 政治人이나 社會指導者 그리고 青年들에게 비전(vision)의 缺乏을 歎하고 또 後進들에게 提示될 비전의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成人들이 青年들에게 提示해야 할 비전은 成人들로서가 아니고, 적어도 提示된 비전이 青年들의 눈에 妥當하게 認知되고 共感을 얻는 指導性이 內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青年들의 性格이나 價値觀이 勘案된 비전이여야 할 것이다.

4. 急進的 改革主義와 守舊的 傳統主義의 對立

青年期의 不信과 否定的 姿勢는 새로운 것을 尋求하고 探索하는 意欲을 促進시킨다. 이와 같은 心理的 機制는 外來의 새로운 思潮나 慣習 또는 새로운 價値觀을 迎入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無批判的이다. 그런가 하면 成人이나 既成社會는 保守的이고 傳統的인 固執性을 特徵으로 하면서도 항상 消極的이고 無氣力한 安逸主義를 特色으로 하고 있다. 이 兩者의 並行的 葛藤과 對立은 때때로 青年들이 集團의 行動으로 표현할 素胚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集團의 行動도 組織的이면서도 恆常性을 지니는 gang 集團과 그들의 集團行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으로는 「테모」와 같은 非組織的이고 一時的이면서도 爆發的 過激性을 나타내는 集團的 行動으로 나타나고 있다.

5. 青年들에 대한 積極的 關心과 指導對策의 貧困에서 빚어지는 青年社會의 病理性

우선 우리는 發達上으로 본 青年期 問題性 2項에 대한 對策을 그 예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青年들을 끌어당기는 引力을 家庭이나 學校가 어떻게 回復하느냐의 問題이다. 그러나 아무리 引力을 強化한다 하여도 發達の 必然的 過程으로 青年을 社會로부터 遮斷시킬 수도 없고 遮斷해도 안될 것이다. 그것이 곧 青年들의 發達을 도우고 앞으로 그들이 社會에서 잘 適應할 수 있도록 助力하는 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社會에는 既成病理가 亂雜하고 惡에 汚染될 可

能성이 높다.

이와같은 二律背反性を 克服할 수 있는 對策에 대한 眞摯한 專問性이 見어되고 있다. 社會靜化 虞犯一掃란 實際로는 理想에 不過한 口號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社會變化 乃至 社會發展에 派生되는 社會現象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既成들은 青年들의 社會學習에 合當하는 社會內的 模式的 青年社會를 마련해 주기 위한 對象이 있어야 한다. 成人과 同一하게 徵收되는 觀覽料, 乘車料 기타 그들에 要求하는 社會的 義務에 대하여 얼마만큼 그들의 權利와 福利를 賦與해주고 있는나를 생각할 때 이와같은 問題를 또한 世代間的 心理的 거리를 넓혀주는 한 要因이기도 하다.

V

新進 對 既成의 問題를 어떤 側面에서 評價할 것인가의 問題는 重要的 것이다. 그것은 新進들인 青年의 立場에서 評價하고 또 既成人은 成人의 立場에서 각각 評價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評價間的 惡循環을 免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問題를 社會發展과 社會秩序라는 基準에서 評價하여 問題解決의 指標을 찾아보고자 한다.

1. 並行的 調和와 發展에의 動力化

社會의 發展은 때로는 相反된 要因들의 相克相出의 過程에서 새로운 飛躍的 發展을 가져온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같은 見解는 고사하더라도 民主社會란 個性있는 個體들의 構成社會로서 不調化的 調和라는 過程을 통해서 發展하는 社會라 할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急進的 改革主義와 舊守的 傳統主義는 並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發展을 위한 媒介要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急進的 改革主義는 舊守的 傳統主義에 覺醒的 改革主義의 無批判的 急進性에 諸動機로서의 役割을 하게 함으로써 調和로운 社會發展에 크게 寄與하는 動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新進世代的 諸要素를 忌避하거나 除去할 것이 아니라 調和로운 中和劑로 受容하고 助成하는 方向이 보다 社會의 發展과 秩序를 위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2. 理解의 바탕 위에 선 共同的 社會

自然現象이든 精神現象이든 그리고 社會現象이든 間에 相反된 存在들의 共存을 우리는 否定하거나 忌避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될 것이다. 예컨대 運動과, 低抗記憶과 忘却 그리고 生産과 消費等이 그 예이다. 低抗 없는 運動 忘却 없는 記憶 그리고 消費 없는 生産을 假想한다면 그것은 곧 物理現象이나 精神現象 그리고 社會現象 그 自體를 否定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즉 低抗이나 忘却 그리고 消費에는 각기 그 나름 대로의 價値를 지니고 運動이나 記憶 그리고 生産에 作用하여 均衡있는 여러 現象들을 維持하는 데 貢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重要的 것은, 一方이 他方의 價値나 機能에 대한 올바른 理解가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그러기에 成人 對 青年間的 問題性도 그 한쪽의 다른 한쪽에 대한 참다운 理解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이다. 不信과 否定이 아닌 相對의 必然的 存在性을 깨닫고 그 存在의 價値가 社會發展에 寄與하고 있다는 眞을 發見할 때 우리는 不調和의 調和를 통하여 共히 社會發展에 寄與하는 共存 共同的 社會 즉 理解의 社會가 이룩되는 것이다.

3. Encounter 에 依한 不信의 解消와 改善을 위한 積極化

끝으로 前述한 並存的 調和로서 社會發展에의 動力化가 될 수 있는 共同社會의 建設을 위한 方法을 생각해 보자. 때로 우리는 現代社會의 特徵은 疎外와 孤獨 그리고 不信의 社會라고 말한다. 이와같은 現象은 비단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個個人間的 問題만이 아니고 階層이나 集團間에도 있다. 그 중에서도 既成世代와 新進世代間에는 더 한층 심한 傾向을 엿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이는 並存的 調和의 共同社會를 形成하는데 障礙가 되고 있는 큰 要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面의 解決을 위해서는 對話의 廣場을 넓혀 만나고 부딪쳐 相對의 性質이나 見解間的 理解와 疎通이 이룩될 수 있는 encountering 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encountering 의 結果는 世代間的 問題나 青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보다 客觀的으로 浮刻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成人들이 생각하던 方法 그리고 靑年들을 위해서 해야하겠다는 計劃이나 해왔던 일들이 과연 現在나 앞으로의 社會를 위하여 그리고 現在의 靑年世代나 혹은 成人世代를 위하여 妥當하고도 賢明한 생각이나 計劃이 었던가가 評價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現代社會의 靑年世代를 위하여 해야 할 積極의이고 도 妥當한 實踐方案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VI

이상에서 우리는 靑年期의 問題性을 社會와의 關係上에서, 특히 對成人關係에서 分析하고 그 可能한 解決의 方向을 摸索해 보았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이 靑年期는 人間發達過程上 그 자체가 問題性을 隨伴할 素地와 可能性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靑年期 問題의 必然性과 對策을 한갓 社會에만 單적으로 依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그 原因論的, 豫防的 側面에서 靑年들로 하여금 成人의 規律로부터 適切한 獨立心을 갖게하고 自律的이고 融通性 있는 道德性과 社會的 行動의 發達을 도우고 助力하

는데 必要한 專門的인 知識과 對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가운데서도 心理學徒들의 具體的이고 科學的인 努力과 積極的인 關與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靑年期의 觀察可能한 行動特性과 性質을 밝히는 데 불과했던 社會的 接近方式의 姑息的인 安易性을 타개하고 보다 深層的이고 基底的인 靑年期와 그 生活空間의 心理的 特性과 personality dynamics 에 관한 專門的인 理解와 知識을 제공하려는 우리 心理學徒들의 研究와 努力이 한층 倍加되어야 할 것임을 指摘하고 싶다.

參 考 文 獻

1.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2. Murray, V.B. The generation gap. *J. genetic Psychology*. 1971, 118, 71-80.
3. *The Teen-age's World*,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
4. Wattenberg, W.W. *The Adolescent Years*. NY. Harcourt, Brace & Co., 1955.